

01 교회소식

사랑, 그리고 보답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와 그 뒤에 숨겨진 은혜로운 간증이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02 생명의 말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선한 일꾼이 되어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선택지는 비결, 궁금하세요?

선(善)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닦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04 간증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갖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인도 퍼시얼 헬렌 라자두라이 전도사와 급성 심근염을 치료받은 김민중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816호 2017년 12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탄을 앞두고 주님 사랑 전해요” 올해 20회를 맞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교회의 항상 기도제목 중 하나로 ‘구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왔다.

1,000여 구제 가정의 성도들을 위해 매달 생활보조비와 쌀, 밀반찬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매월 관공서 및 복지관에 쌀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겨울이 되면 정성껏 담긴 김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에는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 행사는 좋은 날씨 속에 여선교회 회원들과 시설관리국 직원을 비롯하여 교회 상근 직원들을 포함한 연인원 약 1,300명이 동참하였으며, 이웃 사랑의 열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러졌다.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맛있게 완성된 김장은 박스(10~12 kg)로 포장되어 교회 내 구제 가정과 신대방 2동 주민센터, 가리봉동 주민센터, 구로구립장애

인직업재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 목자의 기도에 감사해 수년 동안 직접 재배한 배추를 찬조한 김말진 권사와 김장용 소금을 찬조해온 김웅선 집사 등 여러 성도들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다.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행복하고 순직하게 모든 행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김장 배추를 재배해 헌물하는 김말진 권사 (67세, 목포만민교회)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손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2006년 1월 28일, 설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설 음식을 장만하던 며느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생후 8개월 된 손자(13세, 이재우)가 타고 놀던 보행기 바퀴가 부엌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만 튀김기름이 펄펄 끓고 있던 큰 프라이팬에 손주의 왼쪽 얼굴이 잠겨버렸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아기를 들어 올렸지만, 기름으로 범벅된 손자는 아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또다시 끓는 기름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저는 급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잔물이 단물로 변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아이에게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RS(자동응답서비스)로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들려주었더니 화상으로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가 이내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설 연휴라 저와 아들 내외는 전남 해남에서 당회장님께서 계시는 서울까지 한달음에 찾아가 직접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신속히 치료되어 손자는 실명 위험에 있던 왼쪽 눈의 부기가 빠지고 얼굴에 물집과 진물이 말라서 사고 6일 만에 왼쪽 얼굴 전체에 딱지가 앉았지요. 딱지 속으로 연한 살이 금세 차오르더니 사고 후 약 3주 만에 딱지까지 다 떨어져 아기의 얼굴은 흉터 없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초등학교 6학

년이 된 손자를 볼 때마다 흉터 없이 치료해 주시고자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목자의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POWER OF GOD



▲ 당시 생후 8개월이었던 이재우 아동(13세)은 튀김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큰 프라이팬에 왼쪽 얼굴이 잠겨 큰 화상을 입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사고 6일 만에 딱지가 앉고, 약 3주 만에 흉터 없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던 제자 디모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지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했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그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돌아보며 진리로 굳게 만들었습니다(빌 2:19-22).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필 줄 알고, 교회 일을 찾아 헌신할 수 있는 진실 되고 선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일이나 개인적인 일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열심을 내지 않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작다 해도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 때들을 심방한다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는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되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참 아들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이 아버지께 함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때 맞고 옥에 갇히는 등 온갖 핍박을 당할 때 모든 고난을 같이 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간구를 올렸지요.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

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마음 중심이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배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키를 움직이는 선장이 목적지와 항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암초가 있는 위험한 곳은 피하고 지름길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 되는 일꾼은 전체를 이끌어 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와 같기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마 15:14).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맡았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기 위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죄를 피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 할 바를 섬세히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밝은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인도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져야 합니다(딤후 4:5). 불같이 기도함으로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요(살전 5:2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은 후, 먼저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환상을 통해 성령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결국은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렸지요. 감옥에 갇혔어도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 서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에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사명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

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자신의 뜻과 생각, 계획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A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 B로 했다면 그만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으니 그에 따른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A나 B 모두 하나님께 속한 일로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도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을 좇아 순종할 때라야 하나님의 보장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머리 된 사람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보다 먼저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에 맞춰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지요.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한 후, 아름다운 천국에서 빛나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생명의 다해 충성함으로 하늘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1.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에 선한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요 12:44-45)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을 보낸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증거되는 영적인 말씀으로 성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깨달은 사람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듯이 하나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온전한 선(善)을 이루는 비결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한 마음을 닦기 원하신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선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자.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신 대로 마음에 온전한 선이 임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설령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의 의와 틀에 맞지 아니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며,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 속단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어

떠한 상황에도 선한 생각과 말이 나온다. 반면, 마음이 온전히 선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적인 생각과 의와 틀이 있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마음에 악이 많을수록 말이나 행동으로도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일로 인해 힘들어질때 “저 사람이 나를 늘 공격하며 심히도 불편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상대의 말이 불편한 것이고, 더욱이

상대가 자신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판단까지 했으니 선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과연 나는 상대를 선으로 이해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는지, 아니면 심히 불편해 상대를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 상대를 판단함으로 좋지 않은 말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선한 마음을 이룰 수 있기 바란다.

매사에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가?

마음 중심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준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지만, 반드시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따라서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준다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는 원치 않는데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강권하거나 떠맡기듯이 주는 것이다. 이는 상대를 위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진정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준다면 내 마음에 깃들게 된다. 또한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는 이런 선한 행함이 하나하나 덕으로 쌓여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충만함을 줄 수 있다. 화평함 속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지니 혹여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상대가 악으로 나왔다 해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선대하므로 상대가 마음에 감동을 받

아 결국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장한 배경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과 생각임을 이해하여 그에 맞게 상대를 대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하나 상대의 마음에 맞춰서 어찌하든 상대를 이해할 때 화목할 수 있는 것이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응답과 보장을 받게 된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를 진정 섬기고 있는가?

섬김이란, 단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며,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태를 잃고 온전히 녹아져야 하듯이, 참된 섬김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는 것이다. 또한 주 안에서 서로 간에 섬기는 것이기에 각각 질서에 따라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서 머리가 될수록 섬기려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화평도 깨지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은 상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순순히 따라 주지 않을 때, 마음에서 심히 불편하게 여기고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다음에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떤 일에는 아예 제외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려 하니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려 하고 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질서상 높은 낮은 동일하게 대하며, 설령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다 해도 상대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아무리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이 진리라 한다면 겸손히 들을 줄 알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혹여 자신보다 못한 상대가 칭찬을 받을 때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상대가 잘한 그 한 가지를 궁구하며 배우고자 한다. 내가 잘되기보다는 남이 더 잘되는 것으로 인해 마음 깊이 기뻐하며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 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악을 꾀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더욱 온전한 선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란다.

12
DECEMBER 2017
12/3~12/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 믿음의 분량 4-8
- 성령의 9가지 열매 1-2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3
- 요한일서 강해 23-29
- 요한계시록 강해 111-115

GCN TV 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3(이수진 목사)
- 나의 고백 1(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40(신동초 목사)
- 2계명 2(정구영 목사)
- 하나님의 뜻(김수정 목사)
- 혼인 잔치의 비유(임하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관능 스페셜 5
- 모두 드려요 20
- 옛날 옛적에(이준기 8)
- 내 마음의 찬양 39
- 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71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다시해보기 14)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4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1

전국 어디서나
allel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 TV

“위험천만의 급성 심근염을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김민중 형제 (19세, 1청년선교회)



지난 8월 11일(금),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프더니 점점 심해져 열이 나기 시작하고 먹은 것을 다 토해도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은커녕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14일(월), 원인을 알고자 입원하여 심전도 등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심부전증’이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부전증은 원래 5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인데 왜 어린 학생에게 나타났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며 큰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꼭 받아 봐야 한다고 당부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집으로 돌아와 지난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취했던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상 기도 중에 계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20일(주일), 당회장님께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는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21일(월)에는 이전 병원에서 준 엑스레이, 심장초음파, 혈액검사 자료와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심장전문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료를 보시면서 “심장 기능이 바닥이네요.” 하며 심각한 얼굴로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밀하게 심장 검사를 하신 후, 의사 선생님의 첫마디는 “많이 좋아졌네요!” 였지요. 그리고 저의 정확한 병명은 고열로 인해 심장에 염증이 생긴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심부전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세 명 중 한 명은 1~2주 내로 사망하고, 나머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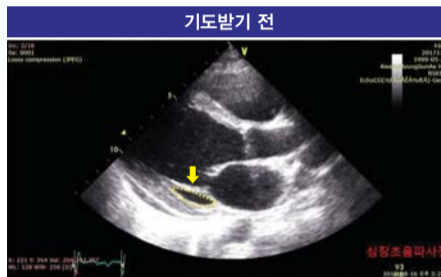
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고 하셨지요. 또 이전 병원 자료를 제게 보여 주시며 심장 곳곳에 물이 차 있고 판막이 활짝 열려 덜렁거리고 있으며, 심장 기능 수치가 정상인 55% 이상인데 30% 정도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사 결과는 심장에 한 군데만 물이 조금 남아 있고 판막도 아주 조금 새고 있으며, 심장 기능 수치가

54.2%까지 올라가 거의 정상계도로 들 어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28일에는 재검사를 통해 모든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은 저는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것쯤이야.’ 하며 취했던 세상의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심근염으로 심장 주변에 삼출물이 고여 있음.



▲ 심근염으로 심장 주변에 고였던 삼출물이 없어짐.



“성도들이 갖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 행복합니다”

퍼시얼 헬렌 라자두라이 전도사 (31세, 인도 마두라이만민교회)

영어 교사를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을 밟으며 체계적으로 말씀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마두라이만민교회를 담임하시던 아버지가 소천하시는 바람에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지요.

저희 교회는 GCN방송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의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넘칩니다.

저의 어머니 마실라 마니 집사님은 30년 동안 심장이 좋지 않아 편찮으셨는데

예배 시간에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즉시 치료되어 현재까지 건강하십니다.

청년부 회장 사명을 맡고 있는 남동생 사무엘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첸나이만민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는 오빠 조엘은 학창시절 호흡곤란, 폐렴, 먼지 알레르기 등이 있었지만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아 지금은 매우 건강합니다.

수바쉬 형제는 GCN방송 생중계로 ‘2017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악귀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수바쉬 형제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지요.

남선교회 부회장인 록손 성도는 한국

에 직접 가서 ‘2017 만민 하계수련회’ 때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13년간 고통받던 왼쪽다리 하지정맥류를 치료받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의 아내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은 뒤 귀신에게 놓임받아 지금은 여선교회 부회장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첫째 아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받았습니다. 가정이 화평해지고 가족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전도에도 힘쓰고 있지요.

싸티야 성도는 결혼 9년 만에 잉태의 축복을 받아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육삭둥이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나 힘없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믿음으로 무안단물(출 15:25)을 먹였더니 소생하여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3030-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남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감탄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